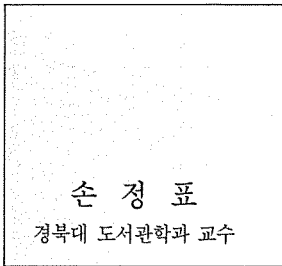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에 바란다



지난 40餘 星霜동안 염원하여 왔던 國立中央圖書館의 新築開館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圖書館法 및 同法施行令 改正과 더불어 앞으로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보다 진일보하여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평소에 어떠한 機能보다도 먼저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었으면 하고 바래왔던 세가지 機能을 중심으로 몇마디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에서 출간된 文獻은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調査·研究圖書館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은 물론 가장 완전한 文化遺産保存所로서의 기능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바란다.

國立中央圖書館은 어느 館種보다도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번째의 기능이라고 하면 역시 國家文獻의 蒐集·保存의 機能이라고 함은 재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實態를 보면 사실상 圖書形態를 중심으로 한 印刷媒體資料의 수집만으로 국한되었을 뿐 아니라, 納本規程이 있으면서도 그나마 망라적인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으나, 금번 도서관법이 개정되면서 納本關係規定도 강화되었으므로 이들 자료들이 研究的 價値가 있건 없건, 나아가 머지 않아 公布될 同法施行令 改正令에 명문화된 자료이건 아니건 간을 불문하고 國內에서 出刊된 자료라면 單

枚物로 된 상품카드로그에 이르기까지 망라적인 수집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명실상부한 국가중앙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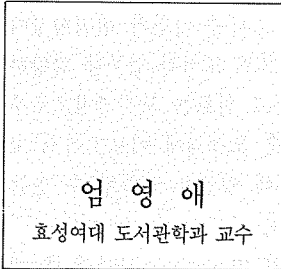
둘째, 國家書誌活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주기를 바란다. 國立中央圖書館의 '國家書誌的 機能'이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써 수행하여야 할 또 하나의 本質的 機能이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書誌活動의 範圍를 보다 확장하여 「대한민국출판물 총목록」도 納本된 印刷媒體資料만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각종 비도서자료까지 포함시켜 가능한 한 망라적으로 收錄하여 명실상부한 國家書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現行 및 遡及의 主題別書誌의 발간, 국내소장 外國資料에 대한 協同目錄의 간행빈도의 다양화 등, 소위 國家書誌情報센터로서의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

셋째, 國立中央圖書館을 頂點으로 한 協力網 構築의 圓滑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網組織에 앞서 우선적으로 地域代表圖書館別 資料特性化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육성하여 주기 바란다.

相互協力이란 사실 강한 소유욕의 작용때문에 상호간에 동등한 주고 받음이 있을 수 있을 때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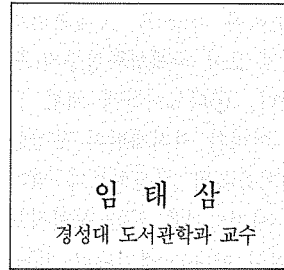
따라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協力網이 되기 위하여는 지역별 산업구조의 특성에 따라 특성화 대학이 있듯이 「도서관진흥기금」의 특별지원등의 방법을 통하여 먼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제분야 자료수집에 加重值를 부여한, 소위 지역별 자료특성화가 선행되도록 노력하여 주길 바란다.

아 물론 상기한 事業들의 추진과정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실이나 관계 부처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어와 새로운 이론들이 도서관 현장에서 응용될 때 진정한 도서관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그 외모에 걸 맞는 한국의 국립도서관에 요구되는 역할들을 보란듯이 완수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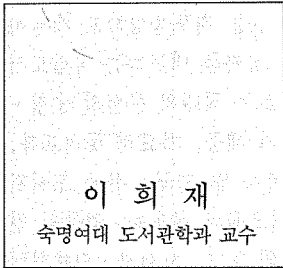
자료의 보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해서 효율적인 정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기 바란다. 국립도서관의 기능에서 자료의 보존과 이용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료가 범람하고 정보가 상품화되고 있는 오늘날 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인 보존이 자칫 소홀하게 다루어 지기 쉽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 상황에서 당면한 요구에 급급해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국립도서관은 한 나라의 모든 기록자료를 물리적으로 영구보존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귀중한 내용이 손실되지 않고 오랫동안 활용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National Information System(NATIS)개념을 실현시킬 수 있기를 당부한다. 우리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무슨 소용이던 간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얼마든지 손에 쥘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를 위하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우리나라 전역의 각종 도서관과 협력하고, 그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도서관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적 물적자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앞장서는 국립도서관이 되기를 바란다. 유능한 연구자들을 확보 활용함과 아울러 학계관계의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얻어진 기발한 아이디어

지난 5월28일 신축 국립중앙도서관 준공 개관식에 참석하고 한 사람의 도서관인으로써 마음의 호못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의 숙원이며 도서관 관계인의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세계문화를 수입보급하며 산업사회화에 대응하는 문화정보센터의 역할을 하며 타도서관을 지도육성하고 개발하는 문화·교육기관으로써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도서관입니다. 중요한 기능으로는 국내의 문헌의 수집·보존·이용, 서지의 개발과 제공, 자료의 국제교류, 도서관·정보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국 도서관에 대한 지원 및 전문사서요원의 재교육, 업무의 전산화와 국가문헌정보체제의 운영, 도서관·정보협력망의 통합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에 규정된 사항으로는 국가문헌의 납본관리, 모든 자료의 정리·분석·보존·축척 및 공중에의 활용, 타관과의 정보자료의 유통, 각종 서지작성 및 표준화 운영, 전산화 문제, 국제교류, 사회교육활동의 지도·지원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은 정부의 도서관에 관한 정책 미흡과 자체활동의 빈약으로 국가의 대표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 및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국가문헌수집과 보존기능의 미흡에서 볼때 수집범위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출판사등에서 간행하는 간행물의 납본제도의 확립, 국내외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고문헌 특히 한국학자료

의 발굴과 매입 및 복사사업의 보급, 납본제도 이전에 출판된 도서의 매입문제 등입니다. ㉠외국의 중요한 기본적인 도서 및 학술문헌이나 학술잡지의 확보와 예산의 부족에 대한 대처문제 ㉡국제적 10여개의 도서관·정보·서지·도큐멘테이션관계 국제기구 중 해외여비를 확보치 못하여 가입 및 국제회의에 참석을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국제협력활동의 부진한 상태임을 들 수 있다. ㉢타도서관에 대한 지도·원조를 위한 제도의 미비와 서지개발의 부진한 이유로는 전문분야별 서지목록의 예산확보가 되지 않는데 주원인이 있으며 서지작성을 위한 문헌정보 검색업무가 컴퓨터화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사관리의 불합리는 관종별, 지역별, 도서관조직망을 구성하여 전국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사서전문요원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학제적·도제적 교육을 받은 사서의 인사관리의 개선책을 참작하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희재
숙명여대 도서관학과 교수

도서관이 한 시대 한 지역의 문화를 규정하고 대변하는 곳이라는 사실이 일반화된 상식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이즈음, 국립중앙도서관 專用으로 외관 번듯하게 건물이 준공, 개관된 일은 晩時之歎의 감이 크다 해도 일단 경하할 일이다. 이제 그 내용상으로도 명실공히 대한민국 국립도서관으로 뿌리 내려야 할 일이 급선무이며 그러기 위해 다음의 내용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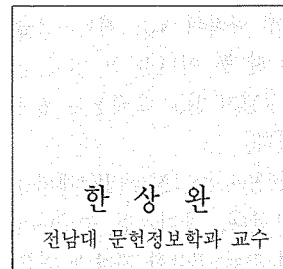
첫째, 국제화사회에 부응하는 건물과 시설, 그리고 도서관 시스템이 요구되는데 이 부분은 새 건물의 개관과 KOMARC의 완성등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본다.

둘째, 정보화사회에서의 국립도서관에 상응하는 Multi-media 도서관의인 구성과 각종 그들 자료의

완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 도서관의 주종을 이루던 인쇄매체만으로, 혹은 초창기적인 시청각매체의 보충만으로 활자인쇄 발명이후 가장 큰 정보의 혁명이 전개되는 새 시대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한 국가의 국립도서관답게 도서관의 수준을 높이는 조종자 역할로서 도서관 직원의 질적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질적으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胥司書는 물론이고 위로는 도서관장으로부터 잡무를 맡고 있는 단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고도화된 국민의 知的 보급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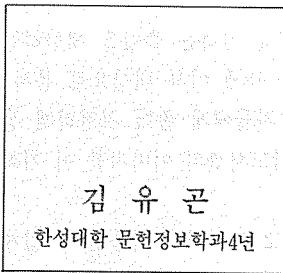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現 수준을 감안할 때 다소 시대착오적인 제안이기는 하나 선진국의 국립도서관처럼 이용자의 수준을 고급학력층(빠리국립도서관의 경우 석사이상)으로 규정짓는 것도 미래 지향적 국립도서관 운영에 합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각층의 이용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각종 도서관의 실질적인 확립과 운용이 전제된 이후여야 할 것이다.



한상완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오랫동안 도서관 문화는 그 정상궤를 찾지 못했다. 문화와 사회·경제의 뒀안길에서 서성였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지난 40여년간의 궤적이었다. 이제 우리가 열망하던 도서관법의 개정도 이룩하였고, 그 시행령도 입법 예고 중이니 도서관 문화의 창달을 기약할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한 나라의 학술과 문화의 중심이 되어 마땅한 국립중앙도서관은 나라의 정책우선 순위의 뒀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천덕구러기 대우를 받으며 존치되어 왔었음도 부인할 수 없었는데, 이를 청산하고자 새 청사도 완공, 이전하였음은 물론 새 도

서관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치와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세계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개정 도서관법에서는 국가 중앙도서관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은 물론 이 법의 전향적 의지인 도서관협력망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그 중책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서, 명실공히 국가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 의욕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효있게 국립중앙도서관을 그 이름에 걸맞게 운영하고 가꾸어 나갈 때이다. 우선 직제 개정에서 실효있는 조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서관 전문직 인사가 상층부서의 책임을 맡게 되어야 하며, 부실했던 전문업무를 차근 차근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김 유 곤
한성대학 문헌정보학과4년

개정도서관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이 대폭 강화됨과 동시에 건물 또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손색없는 서초동 신축 건물로 이전하여 개관함을 문헌정보학도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개정도서관법 및 현재 추진중인 시행령(안)에서 가장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관심사는 남본 강화와 범위의 확대,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및 도서관정보협력망 통합, 공공도서관 기능의 탈피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우는 입장에서 몇가지 간곡한 소망을 말씀드린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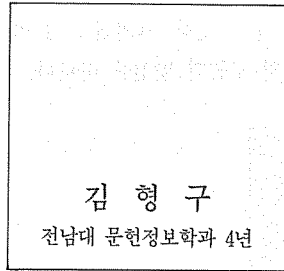
첫째로, 다른 기능은 만족스럽게 못하더라도 국가의 모든 문헌은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할 수 있도록(최후로 찾아 보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남본제도를 완벽히 수행해 달라는 점입니다.

남본에 대한 '실비보상'이 꼭 필요하지도 모르겠지

만, 보상예산이 부족하여 누락되는 자료가 있다면 이는 후대에 문화전적을 전승시킨다는 제일차적 임무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의 도서관정책 수립을 뒷받침 해주는 아이디어뱅크로서의 전문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앙 행정부처에 도서관정책 전담 부서가 없는 실정 아래에서 이 역할은 더욱 필수적이며, 그럼으로서 '代表도서관'이란 이름이 자연스러우리라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기구는 확대되고, 우수 전문직 유인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개정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적 기능'이 약화되었음은 매우 합당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국가대표도서관이 기껏 공공도서관 기능에 머물러 일부 재학생들의 공부방 역할에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대표도서관을 겨우 '국민 독서교육의 전당'으로 상징하는 개관 기념 대통령 휘호를 보니 그런 염려가 더욱 짙어지기 때문입니다.



김 형 구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4년

「冊은 만인의 것이다」라는 말은 정보화시대의 오늘날에 있어서 「정보는 만인의 것이다」라고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어쩌면 이 말은 정보의 공유와 원활한 유통을 의미하며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전담하는 圖書館의 역할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인 지도 모르겠다.

도서관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 등 일련의 制度的 변화과정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의 현대식 신건물로의 이전은 우리나라 도서관발전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시기임을 믿으며 우리나라의 代表圖書館인 국립중앙도서관의 발전에 무한한 기대를 해본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표성과 아울러 改正된 도서관법에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살펴보건데 수많은 課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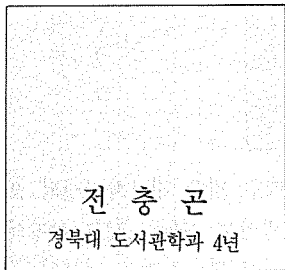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표적 상징성보다 실질적 가치를 부탁하고 싶다.

백삼십만권의 장서와 초현대식 건물이 갖는 상징성과 우리나라의 대표도서관이라는 대표성을 떠나, 앞에서 언급했던 정보의 공유와 원활한 유통을 담당하는 도서관조직의 중추적 요소로서 실질적 가치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이것은 낙후된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의 현실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役割을 말하는 것이다.

도서관이 갖는 교육적, 문화적 기능을 보건데 우리나라의 교육적, 문화적 척도를 공공도서관의 현실이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대표도서관으로서 도서관 전산화, 도서관업무의 標準化, 도서관정보 협력망 구축 등 해야 할 일도 많고 자체발전도 이룩해야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개별적 발전의 관점이 아니라 도서관의 전반적 발전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실질적 가치라고 보며 다시한번 국립중앙도서관의 꾸준한 발전을 바란다.



지난해 10월 24년만에 도서관법이 통과되고 지금 그에 따른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중인 이때 국립중앙도서관이 새로운 건물로 이전 개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기대 또한 대단히 크다.

대규모 도서관을 건축해 개관하게 된만큼 그에 따른 여러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바라고 싶은 사항들은 너무나 많지만, 여기서 2가지만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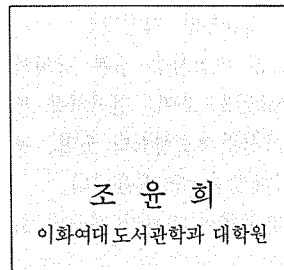
길 바란다. 새로 개정된 도서관법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고 또 개정중인 시행령에서도 도서관법 16조1항의 업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써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게 사실이다. 그런만큼 이번에 새로 이전 개관하면서 다른 그 어떤 업무보다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제 기능 수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도서관법에 명시된 모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미지 쇄신을 바란다. 여러가지 많은 업무로 어려운점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특히 직원들의 친절한 봉사를 바라고 싶다.

지금까지 여러번 직접 느꼈고 또 이용자들에게 들은 얘기중 가장 많은 것이 직원들의 봉사자세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신축 도서관으로 이관도 하고 또 18세 이하는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물론 역삼분관에서 18세 이하 대상으로 봉사)도 있고 하니 일반 이용자들에게 좀더 친절하게 봉사해서 사서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미지를 이 기회에 쇄신해주기 바란다.

이용자 누구나 마음놓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최대의 봉사로 이용자를 맞아 주길 바란다.

이상 두가지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이전 개관을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랄뿐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10월 중구 소공동에 개관한 이래, 1974년 구 어린이회관으로의 이전을 거쳐 금년 5월 28일 서초구 반포동에 본관을 신축, 이전 개관하였다. 많은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축하하는 모습을 TV를 통해 볼 수 있었다. 한 사람의

도서관인으로서 실로 가슴 뿌듯함을 느끼며, 보다는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거목으로서의 국립중앙도서관을 기대하며 다음 몇가지 바라는 점을 기술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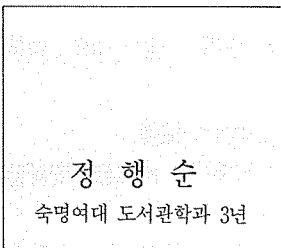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은 여러개의 자료실과 열람실을 갖춘 지상 7층의 웅장한 도서관이다. 누가 보아도 손색이 없다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물의 외적규모에 비례하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도서관으로서 국제교류도 해야하고, 납본도서관으로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하므로, 공부방의 연장이나 오락 위주의 공공도서관 보다는 연구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 많은 도서관학 전문인들이 직원으로서 업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의 봉사체제나 그것의 이용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홍보(Public Relations)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우리나라의 국가도서관으로서 또한 납본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에 규정된 주요기능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글거리는 태양의 폭음과 맞싸워 나가야 하는 계절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국립중앙도서관 개관을

바라보면서 시원한 기쁨을 가슴 가득이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를 도외시한다면 이는 경쟁사회에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현대의 도서관은 단지 학생이나 일반인이 들러 책을 보는 단순한 공공시설의 차원을 넘어 한나라의 지식과 문화의 寶庫이며, 국민의 文化生活의 원천이며, 사회의 精神을 대변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東西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도서관이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측정하는 상징적인 척도처럼 되어 있는데 세계에서 존경을 받는 나라치고 도서관 시설이 훌륭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도서관이 사회교육의 중추기관으로써 활용되기 위해서는 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책이 어떠한 책인지도 파악하여 적절한 사람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도서관에서 일을 한다면 그장서는 수십배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은 바로 文化事業이며, 한나라의 지식을 저장하는 容器인 도서를 효과적으로 보존하며, 생산적인 방법으로 활용시키기 위한 원동력인 것이다. 앞으로 情報化社會에서 도서관은 첫째, 국민에게 平生을 통한 教育의 場이요, 둘째, 정보공급원으로써 국민전체의 文化生活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하며, 마지막으로 가장 民主的인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인간은 몸과 마음이 동시에 건강해질 때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새로운 탄생의 기쁨을 맛보며, 좀 더 완전한 인간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신축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도서관학과 학생으로써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며, 국민전체의 지적수준을 높인다는 사명감아래 꾸준히 발전해나가기를 바라는 바이다.